권은희 의원, 행안부 경찰국 설치 관련

"법치주의 훼손"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사진)은 21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정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행안부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 인사권과 징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질문에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 위반이다. 이를 시행한 행안부 장관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경찰국 설치시 권력의 하수인 전락 정부조직 · 경찰청법 위반… 장관 탄핵 대상"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견제할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다. 권고안에는 행안부령인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행안부 내 경찰국(치안정책관실 공식 직제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 독재 권력이 경찰을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시절이 있었다"며 "1991년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해 내무부 소속이었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고, 경찰위원회를 둬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했다"며 "(경찰국 설치는) 이런 입법을 명백히 훼손하는 시도다.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또 "조직의 운영 수단은 인사권과 징계권 두 가지"라며 권고안에 따라 경찰의 인사권과 징계권이 행안부 장관에게 넘어갈 경우 경찰이 정치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 현장과 업무의 실체를 파악해 누가 민생 치안 업무 공과가 있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그런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올 것"이라며 "민생 치안 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해바라기처럼 행동한 경찰이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찰청 회의에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는 소식에 대해 "경찰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경찰의 밥그릇이나 조직이기주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문제다.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도에 대해 "시행령 개정으로 불가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사무는 경찰청 소관인데 행안부 내 국이나 본부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면 정부조직법에 명백히 반한다"며 "경찰청법 인사도 경찰위원회에 권한을 두는데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 규정을 시도한다면 헌법상 법률 우위의 원칙이나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절차가 맞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2차 전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1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전북도통합방위협의회 의장)를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2작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군·경이 다 함께하는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다짐하고 있다.

민주 "휘발유 · 경유 200원 이상 인하 추진"

"국민 체감토록 법 개정… 정유업계 고통 분담해야 정유사 최대 호황… 유류세 인하폭 50%까지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고유가에 따른 민생 고통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휘발유·경유 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도 민주당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민생 현장에 달려갈 계획"이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찔끔 대책이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가를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무려 4789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1/4분기와 비교해도 2조여원의 이익이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민들은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이에 대기업 정유사들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런 와중에 정부가 꺼낸 대책은 법인세 인하, 즉 대기업 감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유사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에 국민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대기업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유가 폭등 현장 방문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 입법과 정유소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유가 부담을 최소화해 서민들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유사들이 기금으로 내든지 아니면 마진을 줄이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또) 지금 법정 (유류세 인하 폭 한도) 최고세율을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빨리 입법을 추가로 해서 최소한 50% 정도까지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정도 해야 (리터당)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와 김 위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양천현대셀프주유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영등포구 대한석유협회에서 열리는 유가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뉴시스

완주군의회, 제9대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제9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완주군의회가 제9대 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21일 개최했다.

당선자들은 이날 군의회 기구와 직제, 기본현황을 비롯해 의회 회기 운영, 입법·의정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과 의장단 선거, 상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청취했다.

또 의장단 선거를 위한 김표위원으로 유의식·이주갑 당선인을 선임했다.

이날 행사에서 당선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제9대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재선의원들은 초선의원들에게 뱃지를 전달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7월 1일 제268회 임시회를 통해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같은 달 5일 개원식을 갖는다. /완주=이중복 기자

도의회, 올 첫 어린이 ·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전주 우전초 학생 12명 참여

전북도의회(의장 최찬욱)는 21일 의회 본 회의장에서 전라북도의회 주관으로 2022년 제1회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해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의 장을 제공했다.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는 지방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에는 전주 우전 초등학교 12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정' 등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최찬욱 의장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토론과 타협이다. 오늘 모의의회를 통해 나의 의견을 주장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올바른 토론 자세를 배우길 바란다"며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워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및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2022년에 시행되는 첫 모의의회라 의미가 더욱 깊었다. 도의회는 앞으로 매년 의회를 찾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제8대 정읍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제8대 정읍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74회 임시회'가 개회했다.

21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연 시의회는 3일간의 회기동안 자치행정위원회 4건, 경제산업위원회 3건 등 총 7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먼저 자체행정위원회는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신태인 꿈나무교실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이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정읍시 구절초테마공원 짚와이어 관리 운영 조례안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살핀다. /정읍=김대환 기자